

## — Sat-27 —

### 복막으로부터 전이된 대장의 융기형 장액성 낭선암 1예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내과 최홍엽\*, 고광현, 김정기, 박혁, 홍성표, 황성규, 박필원, 임규성

서구에서 암발생률 및 사망률에서 2위를 차지하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남녀 모두 전체 암 발생률 중 4위를 차지하나 식생활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대장내시경의 보급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장차 위암, 간암의 발생을 앞서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90-95%)은 생(선)증-이형성(dysplasia)-암증의 순서를 거치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암종 자체로 발현되거나 림프종과 전이성 암증같은 비상피성 악성증양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성 원발성 대장암의 내시경적 소견은 위암의 Borrmann 분류에 따라 종괴형, 국한궤양형, 침윤궤양형, 미만침윤형으로 분류하는데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여러 형태의 다양한 소견을 가지기 때문에 진단상 어려움이 있다. 주위 장기로부터 대장이 침범되는 경우는 대부분 점막하 종괴 혹은 분절의 협착(narrowed segment)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이의 양상이 점막하층으로 선파가 되기 때문에 병변부위의 점막은 정상이거나 약간의 발적을 보이는 미세한 이상 소견만을 보인다. 주위 장기로부터 직접 침범하는 대장암중 원발병소로서 난소암은 흔하지 않지만 직장과 S-결장에서 암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히 그 병리학적 소견이 장액성 종양인 경우 감별진단에 난소암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난소외 장기로서 융기형의 장액성 종양은 복막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형태의 전이성 대장암은 아직까지 문헌상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좌하복부 통증과 설사를 주소로 내원한 70세 여자환자에서 대장 내시경 소견상 융기형의 모습을 보이고 육안적, 방사선적 소견상 원발 부위가 불명확했던 복막의 장액성 낭포선암을 조직학적으로 진단하고 문헌 고찰과 함께 종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 — Sat-28 —

### Budd-Chiari 증후군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발생한 자발성 패혈성관절염 1예

이수윤, 강선형, 이한규, 김연숙, 나기량, 이병석, 강성욱, 이강욱, 신영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패혈성 관절염은 혈행성 선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병, 암질환, 만성신부전, 류마티스관절염, 알코올중독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한다. 간경변 환자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발성 패혈성 관절염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보고자들은 최근 Budd Chiari 증후군에 의한 간경변 환자에서 발생한 *Streptococcus*에 의한 패혈성 관절염을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65세 여자 환자가 20여 일선부터 발생한 양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의 통증과 전신부종을 주소로 응급실에 왔다. 입원 당시 체온은 37.8°C, 맥박은 분당 100회, 호흡수는 24회, 혈압 160/90 mmHg 이었다. 신체검사에서 전신부종이 있었고 복부팽대, 비장증대와 상복부의 점액류가 관찰되었다. 우측견관절과 양측 슬관절은 압통과 함께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12,800/mm<sup>3</sup>, 혈색소 10.9 g/dL, 혈소판 80,000/mm<sup>3</sup>, ESR 41 mm/hr 이었다. 혈액화학검사상 AST 32 IU/L, ALT 18 IU/L, 총빌리루빈 1.6 mg/dL, 총단백 5.8 g/dL, 알부민 2.3 g/dL, PT 1.5 (INR) 이었다. 슬관절의 관절액 천자검사에서 백혈구는 101,000/㎕ (90% PMNs), 그랑 염색에서 그랑 양성 세균이 관찰되었고 배양검사에서 *Streptococcus dysgalactiase equisimilis*로 확인되었다. 혈액배양검사에서도 동일균이 배양되었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추적 관절액 배양검사에서 균주는 배양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Budd-Chiari 증후군에 의한 간경변 환자에서 자발성으로 나타난 *Streptococcus* 패혈성 관절염을 보고하는 바이며, 간경변 환자에서 장내세균에 의한 세균혈증이 복막염외에도 관절강 및 다양한 장기에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